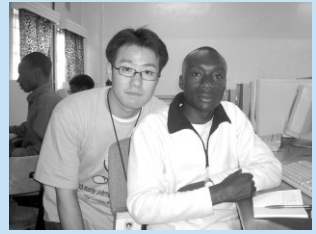


KBSi 치료비지원 수혜환자 인터뷰

KBSi 지원을 받아 이식치료를 받은 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김남훈 군을 만나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지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식받은 골수는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에 99%이상 생착이 되었습니다. 2~3주에 1회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며, 기증해주신 분의 고마움과 그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 새대기가 되어 물리치료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보답하고자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부모님의 심한 반대와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공부를 하며 쉬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 물리치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병 시 상황은? ◎ 사실 전 이번이 2번째 대학입니다. 몇년전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매주 각종 봉사활동과 이른 취업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있던 중 회사일로 서울에 다녀오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고, 골수 이형성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꿈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려는 제게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면서 몇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치료 중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치료 중 고열로 인하여 뇌에 손상을 입어 힘들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 대부분의 일들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면 어렵듯이 기억이 나긴 하지만... 아픈 기억도 소중한 기억이 되겠지만 주변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라며, 힘들었던 기억을 못 하는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은? ◎ 물론 부모님이 첫 번째죠. 항상 살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지극 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셨거든요. 두 번째는 치료를 너무도 친절하게 잘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식구들(추운 겨울날 제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해 지하철로 나선 청년회), 등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고마운 분들이 셀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KBS이치료비 지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꿈꾸는 미래는... ◎ 건강이 허락된다면 대학교 때 인연이 되었던 케냐에 있는 장애인 학교나 소말리아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치료를 이용하여 어린 친구들을 돕고 싶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꼭 따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치료과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외로운 병입니다. 늘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